

시대의 변화나 요청과 상관없이 이 종교적, 윤리적, 문화적 명령은 중단없이 수행되어야 한다. 하지만 우리가 여기에서 한가지 간파하지 말아야 할 것은 우리의 행위가 ‘영원한 것’이 아니라 시간적이고 지상적인 것에 관련된 것일 때는, 우리인생이 이 땅에서 나그네된 자임을 명심하고 그런 일을 복음과 좁은 의미의 영성에 직결된 문제보다 너무 앞세우거나 절대화하지 말아야 한다. 우리는 지상의 그 어떤 것에 대한 절대화도 단호히 거부해야 한다. 물질(物的)인 것이나 이념적(理念的)인 것 그 어떠한 것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이다. 인간의 타락한 심성은 초월의 하나님대신 그 어떤 다른 것을 절대화하고 이데올로기화하기 쉽기 때문이다.

환경 문제를 두고 성경은 오늘의 우리가 무엇보다 먼저 세계관을 교정하여 인간 중심적 세계관에서 하나님 중심적 세계관으로 변화할 것을 요구하며, 그릇된 왕직 수행으로 자연에 폭군 노릇을 하지말고 바른 청지기의 역할을 수행할 것을 요구하며, 욕망을 충족시키는 것을 절대화하는 삶에서 창조질서에 따른 원만한 삶을 살 것을 요구하고, 인간 실존과 삶의 의미와 가치가 오로지 하나님에게만 있음을 깨닫도록 요구하며, 성경적 생명관과 기술관을 정립할 것을 요구하며, 그리고 지상 유토피아를 지향하는 삶에서 하나님나라를 지향하는 삶으로 전환할 것을 요구한다. 이러한 성경적 관점은 오늘날의 기술 중심적 문화를 비판하고 또 그릇된 생태신학과 윤리학도 비판한다. 아울러 우리는 이런 환경문제와 관련하여 환경개선을 이유로 정당화시키는 우리 사회의 집단 이기주의, 하나님의 초월성을 무시하고 자연을 신성화하는 것, 그리고 인간의 고귀성을 손상시키고 물아일체를 주장하는 그릇된 종교들의 사상이 허용되어어서는 안된다는 점을 명심해야 한다.

그밖에 우리가 이런 논의에서 깨닫는 것은 다음과 같은 것들이다. 성장지상주의와 경제 이기주의는 어떤 경우든 정당화될 수 없고 인간과 인간, 또 인간과 자연간에 공생의식과 공존정신이 구축되어야 한다는 사실이다. 또 인류문명의 발전을 절대화할 필연적 이유도, 필요도 없고 또 그것은 현재와 같은 물질주의 방식으로 지속될 수 없다는 사실이다. 과학 기술의 전능성은 허위이며, 그것이 주는 선의에 그것에서 비롯되는 해악도 엄청나다는 점이다. 자연의 유한한 가능성과 그것의 반발로 인해, 그리고 인간심성의 죄성으로 인해 지상 유토피아는 올 수 없다는 것과 하나님의 나라가 인간 노력의 저편에서 하나님에 의해 역사 피안에서 온다는 사실이다. 그래서 오늘날의 인간들에게는 지적, 도덕적 쇄신과 함께 영적, 정신적 개신이 일어나야 한다는 점이다. 또 무엇보다 환경문제의 근본원인이 인간이 자기 신분과 위치를 벗어났기 때문이므로 환경문제의 해결은 인간이 창조때에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정 위치로 돌아오는데 있는 것이다.

어쨌든 우리는 이 환경문제에서 우리의 하나님께서 이 창조세계에서 기뻐하시고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창 1:31)라고 한 점을 망각하지 말아야 한다.

초기 한국교회 성장의 주요 요인들

(Main Factors Of Church Growth in Korea During The Past 100 Years)

임영호*

목 차

1. 서 론
2. 한국교회 성장의 주요 요인들
 - (1) 환경적(정치적, 사회적, 종교적) 요인들
 - (2) 영적인 요인들
 - (3) 선교 전략적인 요인들
3. 결 론

1. 서 론

빌리 그레함(Billy Graham)이 말한 바와 같이 “지난 100년 동안의 한국 기독교의 성장은 교회사에 있어서 가장 괄목할만하고 고무적인 이야기들중의 하나이다”(Ro 1983, back cover). 또한 C. A. Clark은 “한국교회는 의심할 바 없이 하나의 현대의 기적이다”고 말했다(Clark, 1939, 145). 참으로 한국의 교회성장은 놀라운 것이었다. Samuel H. Moffett박사는 말하기를,

기독교는 한국의 옛 지방에 늦게 들어왔지만, 현대 선교사에서는 거의 비교할 수 없을 만큼의 개방성과 수용성이 한국인들의 가슴 속에 있음을 발견하게 되었다. 한국은 급격한 교회성장, 토착화, 그리고 박해 동안의 신실함으로 유명해졌다. 복음의 영향력을 보여주는 증거들은 심지어 잠시 들린 관광객들에도 쉽게 발견될 수 있을 정도로 남한 전역에서 볼 수 있다. 세계 제 5위의 거대

* 조교수(신학과), 선교학전공

도시인 수도 서울은 교회들로 가득찬 도시이다. (Hoke 1975, 369)

1984년에 800만명의 그리스도인을 얻은 한국교회는 한국 개신교 선교 1백주년을 기념했다.¹⁾ 지난 세월 동안 무엇이 한국교회의 경이로운 성장을 가져왔는가? 한국교회의 급격한 성장의 동력은 무엇이었던가? 지난 세기 동안의 한국교회의 놀라운 성장은 좋고 평안한 환경 때문에 가능했던 것은 아니었다. 오히려 한국교회의 역사에는 괴로 물든 고통과 박해와 전쟁의 역사가 담겨져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국교회는 정치적 박해와 국토분단과 경제적 난국을 이기고 급속도로 성장을 했다.

그러므로 앞으로의 교회사역과 효과적인 선교사역을 위해서 초창기 한국교회의 성장 원인들에 대해서 고찰해서 보는 것은 참으로 가치있는 작업일 것이다. 그래서 한국교회의 주요한 성장 요인들에 대해서 그 핵심적인 부분들을 간략하게 고찰해 보고자 한다.

2. 한국교회 성장의 주요 요인들

(1) 환경적(정치적, 사회적, 종교적) 요인들

1) 박해와 전쟁

박해가 교회의 성장에 항상 영향을 주었다는 사실에 대해서는 한국교회도 예외는 아니었다고 말할 수 있다. 특히 1910년의 일본의 박해와 1950년의 6·25전쟁은 한국교회의 성장에 영향을 주었던 두 결정적인 사건이었다. 분명 이러한 박해가 많은 그리스도인들로 하여금 전적으로 하나님과 그의 진리에만 집중하도록 하였다. 김선도 목사는 다음과 같이 언급한다:

일본의 식민지배 아래서 고통받은 한국인들에게 있어서 복음은 그들의 영적인 필요를 채워주었기 때문만이 아니라 정신적, 감정적 만족을 주었기 때문에 그 애말로 기쁜 소식이었다. 복음은 한국인들에게 미래만을 제시한 것은 아니었다. 그것은 어려운 시절을 끓고 나갈 수 있는 용기를 주었다. 즉 복음은 소속감, 마음의 평화, 현재적 만족을 주었다. (Kim 1983, 260)

1950년에 북한 공산주의자들은 남한을 침공하여 전쟁은 3년동안이나 계속되었다. 이 기간 동안에 공산주의자들은 많은 목사들과 교회 지도자들과 사회 지도자들을 사살했고 체포했다. 참으로 한국교회는 순교자들의 피 위에 세워졌다고 말할 수 있다.

6·25전쟁 동안(1950-1953) 한국 그리스도인들이 경험한 고통과 북한 공산주의로 부터의 끊임없는 위협은 사람에게서가 아니라 오직 하나님에게서만 그들의 안전을 찾게 하였다. (Ro 1983, 160)

1) 이 점에 대해서 Samuel H. Moffett는 “선교사들이 1890년에 도착했을 때, 한국 전역에는 겨우 200명의 개신교 그리스도인들이 있었지만, 두 세대가 지난 1990에는 약 1100만명의 그리스도인들로 성장하게 되었다고” 언급했다. Reformed Theological Seminary의 History of Christianity in East Asia, 1993년의 강의문에서 인용.

이러한 박해의 결과로 한국교회는 부흥과 급격한 교회성장을 경험하게 되었다. 또한 교회들은 영적 도움과 마음의 위로를 필요로 하는 사람들로 가득차게 되었다.

2) 종교적 자유

한국에는 약 110년 전만에도 종교적 자유라고는 생각할 수도 없었으며 기독교는 거의 알려지지 않았다. 1887년까지도 한국은 아직도 기독교 신앙을 받아들이는 자들은 사형에 처하는 법을 공식적으로 가지고 있었다(Clark 1971, 91, 92).

그러나 첫 한국선교사들은 처음부터 조선 왕실로부터 호의적인 대접을 받았다. Harry A. Rhodes 박사는 말한다 :

첫 한국선교사들이 의사였다는 것은 매우 다행한 일이었다. 그들은 3개월만에 조선 왕실의 왕자를 구할 수 있게 되었고 6개월만에 정부의 지원을 받는 한 왕립 병원을 통해 선교가 가능하게 되었다. … 마침내 그 선교회의 선교사 6명이 조선 왕가의 의사들이 되었다. 나머지 선교사들, 특히 H. G. Underwood 목사는 조선왕조의 고위 관리들과 친밀한 관계를 가졌고 Underwood여사는 왕과 외국 관리들 사이의 통역사 역할을 했다. (Rhodes 1934, 492)

한국교회의 초기시절부터 그리스도인들은 일본의 식민지 지배의 후반기와 북한 공산주의의 침공 기간을 제외하고는 복음을 어디서든지 공적으로 자유롭게 전파할 수 있었다. 정부수립 이후 텔레비전, 라디오, 신문과 같은 미디어도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어서 인구 성장을 보다 더 빠른 교회성장에 기여하게 되었다.

3) 독립 운동

한국민족은 일본의 식민지 지배로부터의 해방을 위해 기독교를 포함한 서구적인 영향을 환영했다. 1919년 3월 1일에 일어난 일본지배에 대한 민족적인 항거때 독립선언문이 33명의 애국자들에 의해 작성, 공포되었다. 그러나 그들 33인 중에는 기독교 목사들과 평신도들이 다수였다. 이 독립운동 과정에서 그리스도인들도 박해를 받았고 대부분 극심한 고통을 받았다. 이와같이 국가주권을 상실하고 민족갱신에 대한 희망을 부활시킬 다른 영적인 중심지가 없었을 때 교회가 민족의 영적인 중심지가 된 것은 당연한 것이다.

Roy E. Shearer는 다음과 같이 말한다 :

1919년의 독립운동이 한국교회에 지대한 영향을 미쳤다는 사실은 명백한 것이다. 이 시기 동안에 한국 기독교의 새로운 면들이 독립운동의 패권을 따라서 부각되었고, 이 독립운동이 한국의 모든 교회들의 확장에 큰 영향을 주었다는 것을 아는 것은 매우 흥미로운 일이다. … 이 정치적 운동은 많은 지역에서 한국교회 성장의 촉진제 역할을 했다. (Shearer, 1966, 141, 156)

4) 가족 구조

한국교회의 성장에 영향을 미친 또다른 주요한 요인은 한국사회 구조이다. 가족단위(Family unit)는 한국의 토착적인 사회구조를 이해하는 주요한 열쇠이다. 오랜 역사에 걸쳐서 한국인은 강한 가족중심적인 사고방식을 보여왔다. Herbert B. Blair는 다음과 같이 결론을 내린다 :

한국 그리스도인들이 때로는 멀리까지 복음을 들고 폭넓게 나가기도 했지만 복음이 참으로 뿌리내리게 된 것은 가족이라는 통로를 통해서였다. 굳건한 믿음이 가슴에서 가슴으로 말해 졌으며, 그리스도인들이 열매를 맺게 되는 것은 바로 가정이라는 친밀한 관계 속에서 가능한 것이었다. 그리스도인이 된 견실한 사람들은 그들의 동네에 가서 그들의 친족들이 새로운 삶을 얻도록 설득하였던 것이다. (Shearer 1966, 147)

Roy E. Shearer 역시 다음과 같이 설명하였다:

신약성경에 나타난 것처럼 한국사회에서도 가장이 기독교 세례를 받으면 아주 당연하게 그의 전가족을 교회로 인도하였던 것이다. (Shearer 1966, 118)

분명 이러한 가족구조가 한국의 남녀들을 그리스도께로 인도하기 위해 하나님에 의해 사용되었으며 바로 이것이 한국교회가 성장할 수 있었던 효과적인 방편이었다.

5) 단일 민족

한국인들의 한 주요한 특징은 수세기에 걸쳐 단일민족으로 살아왔다는 사실이다. 한국인은 하나의 공통된 언어, 역사, 관습을 포함한 동일한 문화를 소유하고 있다. Marlin L. Nelson 박사는 다음과 같이 말한다:

우리는 한국민족이 하나의 언어와 문화를 가진 단일민족이라는 사실을 기억할 필요가 있다. 비록 몇몇 지방에서는 사투리가 사용되기는 하지만, 모든 한국인들은 쉽고 자유롭게 자신을 타인에게 의사소통할 수 있다; 한국인들은 똑같은 신문을 읽고, 똑같은 라디오를 듣고, 똑같은 텔레비전을 본다. 우리는 무려 225개 넘는 언어들을 말하는 2만개의 카스트와 하부카스트로 구성되어 있는 6억 2천만명의 인구를 가진 인도와 한국을 대조시켜 보아야 한다. … 그러나 한국은 이러한 장애를 가지고 있지 않다. 이것이 한국인들의 복음화에 영향을 준 주요한 한 요소이다. (Ro 1983, 189)

참으로 이러한 하나의 문화가 한국교회의 팔목할만한 성장과 복음의 빠른 전파에 기여했다고 볼수 있다.

6) 한국 재래 종교들의 쇠퇴

한국교회의 성장을 긍정적으로 영향을 준 주요한 종교적 요인들이 있다면 그것은 한국재래종교들의 쇠퇴라고 말할 수 있다. 본래 한국인들은 거의 모두가 샤마니즘과 정령숭배(spirit worship)에 참여 했었다(cf. Rhodes 1934, 48).

불교는 주후 372년 중국을 통해 한국에 전파되어 신라와 고려시대 동안 주요종교로 자리잡았다. 고려시대 동안 비록 불교가 큰 정치적 권력을 행사하긴 했지만, 이후 변질되어 부패하였다. 이러한 결과로 기독교가 전파된 그 시기에는 불교승려가 수도서울에 들어오는 것이 허락되지 않을 정도였다(Brown 1962, 6-8).

유교는 중국으로부터 전파되어 불교의 쇠퇴와 함께 번창하기 시작했다. 그러나 유교 또한 관리들의 사회적 억압과 부패를 막지는 못했다. 게다가 조상숭배를 포함하여 부모에 대한

도리를 지나치게 강조하였다(Brown, 1962, 6-8). 일본에 의해 중국이 패배를 당하자 대부분의 한국인들은 그들 조상들의 종교들에 대해 회의적이 되었다. 이러한 상황 가운데서 기독교가 전통종교들이 쇠퇴한 뒤의 영적인 친공상태를 채웠던 것이다. Everett Nichols Hunt, Jr는 이것에 대해 다음과 같이 언급한 바 있다 :

개신교가 한국에 전파되었을 때의 한국에서의 또 다른 상황으로는 그 동안 강하게 지배하고 있던 전통종교들의 부재를 들 수 있다. … 그러므로 기독교와 타종교와의 대결이 다른 민족에서는 기독교 복음의 초기유입 시기에 주요한 문제였는데 반하여 1885년의 한국에서는 이것이 거의 문제가 되지 않았던 것이다. (Hunt 1980, 81-82)

참으로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종교적인 상황속에서 한국인들의 마음을 준비시키어서 그리스도의 복음을 받아 들이도록 역사 하셨던 것이다.

(2) 영적인 요인들

1) 성경에 대한 심도있고 폭넓은 공부

성경공부가 한국교회 성장의 한 주요한 요인이었다고 할 수 있다. 본래 유교는 윤리 혹은 도덕률을 강조하는데 이러한 영향으로 한국인들은 배움에 큰 관심을 가지고 있었다.

성경공부반 체제는 1890년 7명으로 출발한 언더우드 박사의 성경공부반에서 시작되었다 (Rhodes 1934, 109). 초기에는 이 성경공부반들은 보통 500명에서 1000명정도의 그리스도인들이 참석했다(Rhodes 1934, 254). 이 결과로 성경연구 기관들이 설립되었고 신학교도 세워졌다. 이 초기의 성경공부반에 대해 C. A. Clark박사는 다음과 같이 설명한다 :

그것은 보통 일주일 정도 계속되었다. 하루의 일정은 새벽 5시 혹은 그보다 더 이르게 “새벽기도회”로 시작된다. 하루종일 그 동네의 모든 일들은 중단되고 사람들은 목사들, 장로들, 혹은 다른 유능한 지도자들에 의해 두시간, 세시간, 혹은 네시간씩 성경을 공부했다. 밤에는 오래된 무디식의 부흥집회를 가졌다. 오후에는 보통 동네전체에 흩어져서 그들 동료들의 개인적인 일을 돋거나 그들을 교회로 초청하곤 했다. … 성경은 한국교회의 모든 것 중에 중심이었다. (Clark 1939, 149, 150)

그는 또 “인간적으로 말해서 선교사들 모두는 교회성장의 가장 위대한 비밀은 바로 성경공부반 조직이었다고 믿었다”고 말한 바 있다(Clark 1930, 206). W. N. Blair는 “다른 무엇보다도 성경공부가 초기의 한국교회의 급격한 성장과 부흥을 가능케 했던 조건이었다”고 말했다(Shearer 1966, 55에서 인용).

많은 연구에 의하면 초기 한국교회는 성경공부에 열심이었다는 사실을 보여준다. 성경공부를 위해 모여든 사람들은 함께 숙식을 같이 하면서 축제적인 분위기에서 성경의 가르침을 즐겼다. 모든 교회구성원들 중 약 65퍼센트 정도가 초기의 성경공부에 참여했다고 볼 수 있다(Chou 1983, 314).

2) 부흥회에 일어난 성령의 부어주심

1907년의 위대한 부흥운동은 앞에서 언급한 성경공부에 의해 촉진되어서 한국 전역에 퍼져나갔다. 이는 Allen D. Clark이 언급했듯이 “부흥운동의 기원은 일단의 감리교 선교사들이 원산에서 함께 모여 일주일간의 기도회와 성경연구를 모였던 1903년의 모임에까지 거슬려 올라갈 수 있는데, 그때에 감리교 선교사들의 한 그룹이 원산에서 한주간의 기도와 성경공부를 위하여 함께 모였던 것이다”(Clark 1971, 159). 특히 1907년 1월 14일에 열린 연례적인 장로교와 감리교 사경회 때 성령께서 평양에 운집한 700명의 그리스도인들에게 임했다(Clark 1971, 160, Kane 1971, 267). Graham Lee 목사는 다음과 같이 적고 있다:

잇달아 사람들이 일어나서 자신의 죄를 고백하고 가슴을 찢으며 울고, 자신의 몸을 바닥에 던져 자신의 죄를 자복하며 주먹으로 바닥을 쳤다. … 이러한 죄에 대한 고백 후에 때로는 모든 회중이 통성기도를 했는데, 수백 명이 함께 통성기도하는 그 장면은 가히 형언할 수 없는 것이었다. 다시 또 다른 사람의 죄에 대한 고백이 끝나면 모든 사람들이 다시금 눈물바다가 되었고 함께 통곡을 했었다. 우리는 성령의 인도로 울지 않을 수 없었다. 그 기도회는 밤 2시까지도 계속되었고 죄에 대한 고백과 울부짖음과 통성기도는 끊이지 않았다. (Blair 1977에서 인용)

이러한 성령의 부어주심은 다른 많은 곳에서도 일어났으며 그 부흥은 서울로 번졌고 한국의 다른 도시들과 국경을 넘어 만주와 중국에까지 퍼져나갔다(Kane 1971, 267).

한국교회에 끼친 이러한 부흥운동의 영향은 매우 고무적인 것이었다. 한국 교회 전체가 정결하게 되었고 새롭게 되었다. L. George Paik는 “그 위대한 각성운동은 한국교회의 영적인 거듭남을 드러낸다”고 말한 바 있다(Paik 1971, 360). 또한 그 부흥운동은 사람들을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열심을 불러일으켰다. 이근삼 박사는 부흥운동의 또 다른 주요한 결과에 대해 다음과 같이 언급했다: “이 부흥운동들은 사람들로 하여금 1910년의 한일합방으로 인한 민족적인 억압을 부딛쳐 이길수 있도록 준비시켰다”(Lee 1966, 166).

3) 기도

한국교회는 기도하는 교회로 잘 알려져 있다. 특히 한국교회는 새벽 기도회로 유명하다. 보통 그리스도인들은 새벽 5시에 모여 열심히 기도한다. 금요일에는 철야기도회를 한다. 때로는 금식기도를 하며 며칠씩 산기도를 가기도 한다. 한국 그리스도인들의 기도는 일본의 식민지 지배, 공산당의 침입, 극심한 가뭄, 태풍, 홍수, 기아, 북한 공산주의의 끊임없는 위협 등 어려운 상황과 삶 자체의 불확실성으로 인해 매우 절박하고 열정적이었다. 한철하 박사는 다음과 같이 말한다:

한국이 축복을 받은 것은 진지하고도 헌신된 기도의 삶과 한국 그리스도인들의 열심 때문이다. … 기도하는 교회는 성장하는 교회가 될 수밖에 없다. 교회가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그 교회에 임재하시고, 그 교회를 통하여 일하시기 때문에 성장하게 된다. (Han 1983, 53, 56)

4) 뜨거운 복음전도 사역

한국교회의 현격한 성장의 주요원인들 중의 하나는 초기 한국교회가 교회 지도자들로부터 평신도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방법으로 항상 복음전도적인 관심을 가졌기 때문이다.

초기부터 회심한 그리스도인은 세례를 받기 전에 먼저 다른 그리스도인들과 기독교 신앙을 나누도록 가르침을 받았다고 말할 수 있다(cf. Rhodes 1934, 390). Harry A. Rhodes 박사는 말한다:

한국의 초기 회심자들은 가정에서 그리스도를 증거했고, 그들의 이웃들에게나 친구들에게, 그리고 낯선 사람들에게도 전도했다. 그들은 길을 가면서, 시장에서, 여관이나 사랑방에서도 그리스도를 증거했다. 그들은 자주 밤이 늦도록 믿지 않는 자들에게 열심히 그리스도를 변호했다. … 그러나 또한 복음에 대한 설교는 조직된 방식으로 전해졌다. 주일 예배 후 교인들 중 다수는 근처 가정들과 마을들에 가서 전도했다. 추수감사절과 성탄절은 그런 복음전도를 위한 특별한 날이었다. … 4일에서 일주일에 이르기까지 교회에서 열리는 성경공부반은 저녁집회를 전도하는 기회가 되게 했다. (Rhodes 1934, 390, 391)

초기 한국교회는 복음전도에 대한 강한 책임의식을 고양시켜서 다른 사람들을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방법을 가르쳤다. Alfred W. Wasson이 지적한 바와 같이 “광범위하고 끊임없는 복음전도는 기독교 확장의 또다른 영향력 있는 요소였다”(Wasson 1934, 23). 그러므로 한국교회가 그리스도를 증거하는데 그렇게 열심이었기 때문에 급속도로 성장하게 되었던 것이다.

5) 평신도들의 참여

한국교회 성장의 주요요인들 중 하나는 평신도 지도자 동원(mobilization of lay leaders)²⁾이라 할 수 있다. 이미 언급한 바와 같이 회심으로부터 새롭게 그리스도인이 된 자들은 그의 가족, 친구, 동료학생 혹은 동료직장인들이 그리스도에게 돌아올 수 있도록 기도하면서 성경을 읽고 배운 바를 그들에게 나누도록 훈련을 받았다.

Allen D. Clark은 한국의 초기 선교사들에 의해 채택된 네비우스 정책의 첫 주요원리는 “그리스도인들 각자는 처음 부름을 받은 그 소명에 머물러야 한다; 그리스도인들 각자는 그리스도를 위한 개인적 일꾼이 되어야 하고, 자신의 이웃에게 그리스도를 닮은 삶을 살아보여주어야 하고, 자신의 힘으로 생계를 책임져야 한다”는 것이었다(Clark, 1971, 114).

초기 한국 선교사들의 영향으로 한국의 목회자들은 주일학교에서 가르칠 수 있고, 금요일 구역예배를 인도할 수 있고, 다른 선교단체들과 교회기관에서 봉사할 수 있는 교회의 지도자들을 훈련시켰다. 평신도 자도자 훈련과 그들의 강한 책임의식으로 인해 교회의 목회사역은 크게 힘을 얻었다. 더욱이 평신도 지도자 훈련을 통해 성경공부반이 활성화 되었고 그리스도인들의 신앙을 다양한 영역에서 강화시킬 수 있게 되었다.

6) 강한 청지기의식과 희생정신

초기부터 한국교회의 그리스도인들은 강한 청지기의식과 희생정신을 가졌다. 대부분의 교회들은 처음부터 자립했다. 주진국박사는 다음과 같이 설명한다:

2) 이 평신도의 동원은 전 세계의 복음화라는 주님의 목적과 연관된 것으로 매우 핵심적인 것이다. 모든 민족에게 그의 복음을 전하게 하기 위한 주님의 전략은 “승법 전략(multiplication strategy)”, 혹은 “제자삼기 전략(disciple-making strategy)”으로 특징지워질 수 있다. 이 방법은 신실한 그리스도인들을 참되고 생산적인 그리스도의 제자로 훈련시켜 제자삼는 사역을 지속적으로 이어나갈 수 있도록 하는 훈련을 포함한다. 그러므로 교회성장의 열쇠는 평신도들의 훈련과 동원이라 할 수 있다.

교인들의 자발적인 헌금은 한국교회 성장의 가장 주요한 요인들 중 하나였다. 그들의 생활수준과 교인들의 수에 비해 그들이 하나님께 드리는 그들 재산의 헌금에 대한 양과 열심은 참으로 놀라운 것이었다. 이것은 한국교회가 서구 선교사들로부터 거의 재정적 지원을 받지 않고서도 자립할 수 있게 된 가장 결정적인 요소였다. (Ju 1989, 151)

보통 평신도 그리스도인들은 쌀, 돈, 시간, 노력봉사 등의 형태로 희생적으로 주님께 자신을 드렸다. 그들은 소득의 십일조를 기꺼이 드렸을 뿐 아니라, 주일헌금, 월정헌금, 교회건축과 복음전도와 가난한 자들을 위한 특별헌금도 드렸다. 그들은 많은 다양한 방법으로 적극적으로 섬겼다. 그들은 믿지 않는 자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 매우 열악한 사례를 받고서도 시골, 산촌에까지 갔으며 매우 누추한 환경에서 살았다. 한국교회의 목회자들과 평신도들의 열심과 자기희생은 분명히 복음의 진보를 위해 하나님에 의해 사용되었던 것이다.

7) 지도력

초기부터 목회자들은 인격의 고상함과 삶의 의미에 관해 백성들을 가르칠 수 있는 역량으로 인해 교회와 지역공동체에서 지도자로서 존경을 받았다.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모든 문제를 처리하는 하나님의 사람들로 말씀을 전했다. Harry A. Rhodes는 다음과 같이 말한다 :

그들은 자신의 삶에 있어서는 자신의 비그리스도인으로서의 옛 습관들을 버렸을 뿐 아니라, 근신과 자기부인과 의로운 삶의 모범이 됨으로 자기절제를 실천하였다. (Rhodes 1934, 404)

한국교회 역사를 통하여 하나님께서는 남다른 영적인 확신과 비전, 조직능력을 가지고, 큰 교회를 설립하거나 많은 교회들과 학교들을 세울 수 있도록 하나님에 의해 사용된 매우 전실하고 유능한 지도자들을 일으키셨다. 그러므로 한국교회의 적극적이고 신실한 지도력이 한국교회 성장의 주요한 요인들 중 하나라고 말할 수 있다(cf. Ro 1983, 245-289).

8) 심방과 구역모임

한국에서의 서구 선교사들의 선교사역 초기부터 한국교회는 심방을 실시했다. 이는 그리스도들로 하여금 영적으로 성장케 하고 많은 개인적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도록 도움을 제공하는 결과를 가져 왔는데, 보통 봄과 가을에 각 교회는 심방을 실시했다.

한국교회 성장에 기여했던 또다른 주요한 요소는 매우 정기적으로 가정을 순회하면서 모임을 가졌던 구역모임이었다. 이 모임은 감리교 제도에서 시작되어진 것으로 알려져 있으며, 한국의 거의 모든 교단에서 채택되었다.

9) 설교

한국교회가 설립되었을 때 교회 사역의 주된 초점은 하나님 말씀의 설교와 가르침에 주어졌는데, 한국교회에서의 설교의 영향에 대해 김선도 목사는 다음과 같이 말한다 :

한국교회사로부터 우리는 백성들이 2차 세계대전 동안 일본에 의해 박해를 받았고, 6·25 전쟁(1950-1953) 동안에는 공산주의에 의해 탄압을 받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위로와 구원과 희망을 주시기 위해 설교를 사용하셨다는

것을 배우게 된다. 그 결과 한국교회들은 부흥과 급격한 성장을 경험하게 되었다. (Kim 1983, 261)

초창기 한국교회 목회자들을 배출하여 내었던 평양신학교의 설교 스타일은 풍유적인 설교가 특색을 이루었지만, 해방이후 설립된 고려신학교에서는 박윤선박사등의 영향으로 본문설교가 강조되어졌고 목회사역자들에게 확산되어 점으로, 보다 발전적인 방향으로 나아가게 되었다(cf. Park 1997, 172-193). 그리해서 한국 여러 신학교에서의 목회자망생들에 대한 훈련수준의 향상에 따라 설교의 수준에도 점진적인 향상이 있어 왔다.

시간이 지나감에 따라, 한국의 주요 교단들에 소속된 많은 신학교들에는 이제 다양한 분야에서 수준 높은 교수들로 채워지게 되었다. 결과적으로 오늘날의 목회자들은 과거의 선배 목회자들보다 훨씬 더 양질의 훈련을 받고 연구하고 설교할 수 있게 되었다.

(3) 선교 전략적인 요인들

1) 초기 선교사들의 혁신적 노력

Harvie M. Conn박사는 한국교회에 복음을 소개한 초기 선교사들에 대해 다음과 같이 말한다 :

초기 한국교회사는 보수적, 복음적 기독교의 역사였다. 그것은 복음을 전해준 장로교 신앙의 초기 선교사들의 덕분이었다. … 초기 교회설립 시절에 장로교회를 인도하던 선교사들은 확고한 신앙의 사람들이었고 그러한 확신들 가운데서 교회를 세우는데 주저함이 없었다. (Conn 1966, 26)

Alfred W. Wasson은 다음과 같이 말한다 :

한국의 교회일꾼들과 친밀한 관계를 가진 그 선교사들의 인격과 품성은 교회 사역에 커다란 공헌을 했다. 선교사들의 도덕적 실수에 대한 사례는 없었다. 예외없이 그들은 대학교육을 받은 사람들이었고, 섬세하고 친절하고, 상식이 풍부한 사람들이었다. 그들은 깊은 진지함과 헌신과 집중력을 보였던 사람들 이었다. (Wasson 1934, 27)

선교사들은 한국 그리스도인들에게 동일한 것을 요구하면서 교리에 있어서는 보수적이었고 매우 높은 도덕적 표준을 보였다.

처음부터 초기 선교사들은 걸어서 혹은 말을 타고서 광범위한 지역을 여행했다. 예를 들어 게일 박사는 “매번 다른 길로 다른 계절에 한반도를 12번이나 횡단했으며 1915년에 이르러서는 조랑말을 타고 25번이나 한반도를 횡단을 했다”고 말했다(Rhodes 1934, 85). 이런 식으로 선교사들은 한국 백성의 마음과 실제적인 삶의 상황을 잘 이해할 수 있게 되었고 한국어도 유창하게 배울 수 있게 되었던 것이다. 한경직 목사는 “그들은 성경에 기초한 확고한 기독교 신앙을 가졌고 복음을 들고 땅끝까지도 가겠다는 엄청난 열정을 가진 사람들이었다”고 말한다(Han 1983, 350).

2) 네비우스 선교정책의 채택

이른바 네비우스 정책³⁾이 1890년 한국의 장로교 선교의 주요 전략으로서 채택되었다. 이 방법은 “三自 원칙”, 곧 지교회의 자립(self-support), 자치(self-government), 자전(self-propagation)을 말한다. Allen D. Clark은 이 선교정책의 본질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언급한다:

네비우스 정책은 단지 보조금 지급을 거부하는 자립 체제를 말하는 것은 아니다. 네비우스 정책의 진정한 핵심은 모든 그리스도인들로 하여금 스스로 성경을 공부하게 하고 자신이 발견한 것을 다른 사람들에게 전할 수 있도록 격려하는 성경공부에 있다. (Clark 1971, 115)

S. A. Moffett 박사는 네비우스 선교정책의 두 위대한 원리는 바로 성경공부반 체제와 자립이라고 했다(Rhodes 1934, 87). Charles Allen Clark은 “성경공부반이 없이는 네비우스 선교정책이 성공했으리라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자신의 신념을 피력했다(Clark 1930, 243).

이 선교정책의 채택 결과, 네비우스 선교정책으로 인해 복음전도적인 정신이 형성되었고 결국 한국교회는 성장했다. 이 선교정책의 성공의 원인에 대해 박용규 박사는 “가장 적절한 답변은 이 선교정책이 성경의 권위에 기초해 있었기 때문에 성공했다는 것이다”라고 말했다(Park 1991, 86). 김남식 박사는 자전(自傳), 자립(自立), 자치(自治)에 대한 네비우스 선교정책의 강조는 한국인의 심성에 크게 와닿았다고 말했다. ‘자(自)’에 대한 강조는 그렇게 오랫동안 유교적 사고방식의 영향하에 눌려있었던 한국인들의 독립정신을 크게 불러일으켰던 것이다(Kim 1985, 46). 참으로 이 선교정책이 한국교회의 성장의 주요 요소였음은 분명한 것이다.

3) 한국 그리스도인들의 주도권

선교사들이 한국에 도착하기 전부터 한국인들의 복음화를 위해 일하고 있던 초기 한국 그리스도인들이 있었다. 1873년 존 로스(John Ross)와 만주의 스코틀랜드 장로교 선교사였던 그의 조카 John McIntyre는 그 곳에서 한국인들에게 복음을 전파하기 시작했다. 그 결과 McIntyre 목사는 1876년 처음으로 한국인 회심자에게 세례를 베풀수 있었다. 또한 그 선교사들은 이웅찬과 김진기 두 사람의 도움으로 1882년 출판된 누가복음을 번역했다(Rhodes 1934, 73-74).

초기의 한국 그리스도인들 중에서 이승하는 권서인으로 복음을 전하기 위하여 여주에 처음으로 들어갔다. 박홍천 또한 여주에서 선교사들을 돋는 첫 인물이 되었다. 박홍천은 밀년에 죽기전에 많은 채찍을 맞고 2년간 감옥생활을 했다고 한다(Rhodes 1934, 75).

특히 로스 목사에게 세례를 받은 자들 가운데 소래의 서상윤은 한국의 첫 개척자적인 개신교 복음전도자가 되었다(Rhodes 1934, 74). 그는 여주에 들어가고자 하다가 체포되어 투옥되었다. 다행히도 감옥을 책임지고 있던 한 친척의 도움으로 성경책 몇 권을 가지고 밤에 탈출했다. 그리하여 그는 그의 가정에 돌아와 가족들과 친척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었다. 그 결과 6개월만에 한국에서의 첫 교회가 설립되어 약 20명이 매주 예배를 드리기 위하여 회집하였다(Ro 1983, 142). 그리하여 소래교회는 “한국 개신교회의 요람”으로 알려

3) 네비우스 정책은 중국의 프린스頓출신의 선교사 John L. Nevius 박사의 이름에서 유래한 것이다. 1890년 6월 그는 서울을 방문해서 짚은 선교사들이 그들의 선교사역을 시작함에 있어서 유의해야 할 선교방법들에 대해 논하면서 두 주일을 보냈다. 그리해서 한국의 선교사들은 그들 선교사역의 주요한 선교전략으로서 네비우스의 제안들을 채택했던 것이다(cf. Rhodes 1934, 86-90, Clark 1930, 33-34).

지게 되었다.

서상윤은 후에 복음을 전하기 위해 서울로 갔다. 그리하여 첫 개신교 선교사들이 서울에 도착했을 때 이미 그는 복음을 전하고 있었던 것이다. 그러므로 한국에서 최초로 소래, 서울, 여주에 교회들이 세워진 것은 초기 한국 그리스도인들의 신실한 사역으로까지 거슬러 올라간다고 분명하게 말할 수 있다. 한가지 흥미로운 사실은 첫 일곱명의 한국 목사들중에서 서경조(서상윤의 동생)는 소래출신이고 한석진은 여주출신이라는 것이다.

4) 초기 한국교회의 성경번역과 배포

복음서를 한국어로 번역하는 작업은 이미 만주와 일본에서 이루어졌다. 선교사들이 한국에 도착하기도 전에 성경번역 작업이 시작된 것은 이후에 있을 한국의 복음화에 큰 도움이 되었다.

특히 스코틀랜드 장로교 선교사 존 로스 목사는 이웅찬, 김진기, 서상윤과 같은 한국 그리스도인들의 도움을 받아 1882년에 출판된 누가복음을 만주에서 번역하였다(Rhodes 1934, 74). 또한 그는 1882년에 요한복음을 출간했고, 1883년에는 3000부의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을 출판했다. 마태복음과 마가복음은 1884년에 완성되었고, 1887년에는 신약성경 전체가 완성되었다(Min 1977, 144).

한편 일본에 있던 이수정도 중국어 성경과 일본어 성경을 비교하면서 성경을 한국어로 번역했다. 그는 1884년에 사복음서와 사도행전을 출판했고, 1885년에는 마가복음을 1000부로 출판했다(Min 1977, 142).

언더우드 목사와 아펜젤러 목사가 첫 선교사로서 한국에 도착하기 전에 그들은 먼저 일본에 들렀다가 이수정이 번역한 마가복음을 가지고 한국에 왔다. 로마 카톨릭 선교와는 달리 초기의 한국 개신교회는 처음부터 성경에 깊이 뿌리를 내리고 있었다.

성경의 배포에 대해서는 오병세 박사는 다음과 같이 언급한다 :

성경은 급속도의 빠른 속도로 배포되어 나갔다. 미국 성서공회의 보도에 의하면 1910년 전까지 무려 151,230권의 성경이 배포되었으며 1910년에는 666,178권의 성경이 배포되었다. 주목할만한 사실은 1,000,000권의 성경책이 “백만영혼을 그리스도께로”라는 전도운동 당시 출판되었다는 것이다. 성경은 우리 신앙과 교회의 기초이다. 그러므로 믿지 않는 자에게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 전도하는 가장 빠른 방법은 예수 그리스도의 삶과 그의 교훈이 기록된 성경의 메시지를 전달하는 것이다. 초기 선교사들이 성경을 우리의 언어로 번역한 것은 매우 혁명한 처사였다. 성경의 번역과 배포는 한국교회의 급속한 성장을 가능케 했다. (Oh 1983, 218)

5) 교육에 대한 강조

초기부터 한국교회에서는 교육과 복음전도가 함께 연결되어 있었다고 말할 수 있다. 처음부터 선교사들은 교육을 강조했고 무지한 수많은 대중들을 계몽시켰다. C. A. Clark 박사는 “한국에서의 선교는 항상 직접적인 복음전도에 곧이어 교육을 강조했고 그것은 모든 복음전도를 뒷받침하는 본질적인 것이었다”(Clark 1939, 150). 그러므로 한국교회는 그리스도인들로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훌륭한 증인들이 되도록 교육하였고, 교회는 교육을 통하여 한국인들을 복음화시켰다.

특히 초기 선교사들은 성경과 찬송가를 한국어로 번역하였고 주일학교, 성경공부반, 기독교

주간학교들,⁴⁾ 성경학교 등에서 교육하였다. 연세대학교(1915설립), 이화여자대학교(1910설립)은 바로 초기의 선교사들에 의해 설립되었다 것이다. 초기 선교사들은 복음전도의 한 방법으로서 교육을 강조했고, 학교는 하나의 훌륭하고도 활동적인 복음전도 기관이었다. 윤성범은 다음과 같이 말한다 :

지배적인 중국문화 아래서, 초기 한국 기독교는 세종대왕과 그의 왕립 학자들에 의해 개발된 한글의 사용을 강조했다. 성경과 찬송가는 교육을 거의 받지 못한 백성들도 읽을 수 있도록 한글로 기록되었다. 이 자국어인 한글은 이후 복음 전파의 가장 효과적인 미디어로 사용되었다. (Yun 1964, 248)

의심할 바 없이 한국의 첫 선교사들과 한국교회는 기독교가 전파된 세계 다른 나라들에 비해 교육을 강하게 강조했다. 오늘날의 급속한 한국교회의 성장은 일차적으로 기독교 교육의 결과라 할 수 있다.

6) 한국 여성지위의 신장과 여성지도자 훈련

초기 선교사들이 한국에 들어오기 이전에 한국 여성들은 유교적 윤리관에 의해 남성들에게 법적으로 종속되어 있었다. 유교적 덕목에 의하면 여성은 가정에만 머물러야 하며 남성에게 종속적이어야만 했다. 과부는 아무리 젊다하더라도 재혼을 할 수 없었다. 또한 여성들은 그들 자신의 이름을 사용할 수 없었는데, 이는 남자들과의 관계에서의 그들의 위치에 의해 자신의 신원이 확인되어 졌기 때문이었다. 여성들은 오직 가정교육만을 받았을 뿐 공식적이고 공적인 교육은 제공되지 않았다.

그러나 기독교는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의 남녀평등을 가져왔다. Harry A. Rhodes는 “선교사들은 한국 여성들에게 구원과 해방과 희망, 계몽과 하나님 앞에서의 평등, 여성의 정당한 사회적 지위에 대한 메시지를 가져왔다”(Rhodes 1934, 260). 나이가 1886년에는 미국의 여자 선교사 Mary E. Scranton에 의해 설립되어 이후 한국의 가장 큰 여자대학교가 된 이화학당과 같은 여성을 위한 공식적인 공교육이 시작되었다. 이후에는 여성 복음전도자들의 조직적인 훈련을 위해 여성 성경학교가 1917년 감리교회에 의해, 1923년에는 장로교회에 의해 각각 설립되었다(Ro 1983, 84).

여성 사역자들은 한국교회의 성장에 혁혁한 공헌을 가져왔는데, 이는 그들의 자랑스럽고 지속적인 헌신의 결과 였다. 전재옥박사는 다음과 같이 언급한다 :

1907년 교회가 급속도로 성장하자 교회지도자와 교사들이 부족했다. 게다가 교인들의 2/3가 여성이었기에 그들을 가르칠 수 있는 여성 복음전도자들이 필요하였다. 그리하여 초기 한국교회는 여성 복음전도자 훈련을 강조했다. 또한 여성 복음 전도자들은 한국의 옛 무당들이 차지했던 역할을 대체하는 상담자와 교사로서 쉽게 환영을 받았다. 그들은 지교회의 지도자들로서 열심히 일했다. 어느 교회에서는 두 명의 여성 복음전도자가 한해에 무려 2,450명을 전도했으며, 이름이 알려지지 않은 어떤 여성은 한해에 무려 6,912명의 여성들에게 복음을 전했다고 한다. … 아시아의 다른 어느 나라에도 이와 같이 여성이 교회의 지

4) 몇 개의 기독교 학교들은 선교사들에 의해 설립되었다. 남학교인 배제학당(1886), 여학교인 이화학당(1887), 숭실대학(1906), 이화대학(1910), 연세대학(1915)이 그것이다.

도력에 효과적으로 동참했던 나라는 없었다. (Chun 1983, 84-85)

7) 기독교적 관점에서의 의학적, 사회적, 정치적 관심

처음부터 선교사들은 선교사역의 뚜렷한 목적을 가지고 있었다. 그들의 궁극적인 목표는 영혼의 구원, 곧 삶이 결정적으로 변화받는 회심이었다. Allen D. Clark 박사는 “비록 의료적, 교육적 사업이 한국에서 처음 기독교사역을 시작하는 도구가 되긴 했지만, 선교사역의 주된 목적은 한국을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것이었다”는 것을 언급하고 있다 (Clark 1971, 96). 참으로 선교사-의사들과 간호사들은 “행위”로 뿐 아니라, “말”로서도 그리스도를 증거하려 했던 것이다.⁵⁾

일제시대와 6. 25전쟁 동안의 고난의 시절동안에 선교사-의사들과 간호사들은 선교병원들에서 환자들을 돌보아 주었다. 비록 선교사들은 정치적으로는 중립을 지키려고 했지만 비무장된 평화적인 시위까지도 봉쇄하려는 정부에 대해서는 거세게 항거했다(Wasson 1934, 101-102). 그들의 이러한 동정심과 관심으로 많은 사람들이 복음을 받아 들이게 된 것이다.

3. 결 론

교회성장은 하나님 말씀의 주의깊은 가르침과 전파를 통하여 자신의 백성을 부르시는 하나님의 부르심의 결과로 일어난다. Kenneth S. Latourette 박사는 “한국의 교회들은 일차적으로 성령의 사역의 결과였고, 많은 선교사들과 한국 그리스도인들의 헌신된 수고에 크게 힘입고 있다”고 기록하고 있다(Wasson 1934, vii).

박해와 전쟁과 가난과 분열 등에도 불구하고 한국교회는 지속적으로 성장했다. 모든 교회성장에 대한 연구에서 그 성장의 중심에 계시는 하나님을 인정해야 한다. 왜냐하면 모든 것을 자라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임이시기 때문이다(고전 3:7). 그러므로 무엇보다도 한국교회의 설립과 그것의 받은바 축복은 “하나님의 신비”로서의 성령의 사역의 결과로만 설명될 수 있다.

성령께서는 선교사들의 지칠줄 모르는 노력들과 많은 한국 그리스도인들의 영적인 열심과 함께 여러 가지 환경적 요소들을 사용하셨다.

특히 전통적인 한국의 재래종교들의 쇠퇴와 오랜 기간동안의 정치적 갈등과 고난은 복음을 받아들일 수 있도록 하기 위한 하나님의 섭리적 준비과정이었다. 한국인들은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 영적인 갈망과 소망에 대한 필요와 자신 너머의 도움을 원했다. 이 모든 것들이 그들이 복음을 받아들이도록 한 것이었다.

인간적으로 말해서, 토착적인, 성경에 근거한, 하나님중심적인, 그리고 교회중심적인 사역에 강조를 두는 것과 아울러 적극적인 평신도의 참여를 강조한 네비우스 정책이 한국교회 성장의 기초였다고 볼 수 있다. 또한 초창기부터의 의료와 교육사업을 포함한 포괄적인 선교사역이 백성들의 필요를 만족시켰고, 사회의 모든 계층의 사람들에게까지 미치도록 도왔다. Samuel Hugh Moffett는 다음과 같이 한국교회 성장의 원인을 요약하고 있다:

5) 이 점에 대해서 Alfred W. Wasson은 “수년동안 병원에 한명의 한국인 설교자와 한 명의 여성 성경교사가 함께 고용되는 것이 초기의 관행이었다. 따라서 이런 방식으로 많은 새로운 신자들이 교회에 더하여졌다”고 기록하고 있다(Wasson 1934, 118).

가장 중요한 원인들은 개인 대 개인의 복음전도에 대한 강조, 전체 교인들을 위한 성경공부, 자립(自立), 자치(自治), 자전(自傳)을 강조한 네비우스 정책의 채택, 그리고 부흥에 있어서의 성령의 특이한 부어주심이라 할 수 있다. (Hoke 1975, 378)

성령께서는 이러한 요인들을 통해 역사하심으로 그의 영광을 위해 한국교회의 경이적인 성장을 일으키셨던 것이다. 그러므로 한국교회가 지난날의 과거의 성취에만 만족할 것이 아니라, 이제 다른 나라들의 교회사에 비한다면 상당히 짧은 시기인 지난 100년 동안에 놀라운 성장을 주신 하나님의 주권적 섭리를 깊이 생각해 보아야 할 것이다.

하나님의 구원사역을 위해 지속적으로 쓰임받기 위해서 한국교회는 주님의 지상명령에 따라 세계복음화에 대한 새로운 각성을 가져야만 한다. 하나님의 나라와 그 의를 먼저 구하면 주님의 지상명령의 성취와 더불어 한국교회의 성장은 지속적으로 일어나게 될 것이다. 따라서 “한국교회가 과거에 그렇게 탁월했던 사도적 성격과 열심을 지속적으로 유지하는 한, 교회는 계속 존속하며 앞으로 전진해 나갈 수 있을 것이다”(Rhodes 1934, 540)라고 언급한 Harry A. Rhodes의 결론을 오늘날의 한국교회는 깊이 명심 해야만 할 것이다.

REFERENCE LIST

- Blair, William Newton and Hunt, Bruce F. 1977. The Korean Pentecost and The Sufferings Which Followed. Carlisle, Penn. : The Banner of Truth Trust.
- Brown, George Thompson. 1962. Mission to Korea. Nashville, Tennessee : Board of World Missions, Presbyterian Church U. S.
- Chou, Sun-Ae. 1983. Korean Church Growth and Christian Education. In Korean Church Growth Explosion. ed. Ro Bong-Rin and Marlin L. Nelson. Seoul : Word of Life.
- Chun, Choe-Ok. 1983. Korean Protestant Women in Mission. In Korean Church Growth Explosion. ed. Ro Bong-Rin and Marlin L. Nelson. Seoul : Word of Life.
- Clark, A. D. 1971. A History of the Church in Korea. Seoul : The Christian Literature Society of Korea.
- Clark, C. A. 1930. The Korean Church and the Nevius Methods. New York : Fleming and Revell.
- _____. 1939. “The Presbyterian Church of Korea” The Growing Church. New York : International Missionary Council.
- Conn, Harvie M. 1966. Studies in Theology of the Korean Presbyterian Church. The Westminster Theological Journal, Vol. 24, No. 1, November.
- Han, Chul-Ha. 1983. Involvement of the Korean Church in the Evangelization. In Korean Church Growth Explosion. ed. Ro Bong-Rin and Marlin L. Nelson. Seoul : Word of Life.
- Han, Kyung-Chik. 1983. The Present and Future of the Korean Church. In Korean Church Growth Explosion. ed. Ro Bong-Rin and Marlin L. Nelson. Seoul : Word of Life.
- Hoke, Donald E., ed. 1975. The Church in Asia. Chicago : Moody Press.
- Hong, Hyun-Sul. 1983. Social, Political and Psychological Aspects of Church Growth. In Korean Church Growth Explosion. ed. Ro Bong-Rin and Marlin L. Nelson. Seoul : Word of Life.
- Hunt, Jr. Everett N. 1980. Protestant Pioneers in Korea. Maryknoll, New York : Orbis Book.
- Ju, Jin-Kuk. 1989. The Missionary Nature of the Church and Its Implementation in the Korean Church. D. Miss diss., Fuller Theological Seminary.
- Kane, J. Herbert. 1971. A Global View of Christian Missions. Grand Rapids : Baker Book House.
- Kim, Nam Sik. 1985. A Study on the Mission Principles and the Theology of the Presbyterian Church in Korea. D. Min. diss., Reformed Theological Seminary.
- Kim, Sun Do. 1983. Pastoral Care and Counselling. In Korean Church Growth Explosion. ed. Ro Bong-Rin and Marlin L. Nelson. Seoul : Word of Life.
- Lee, Kun Sam. 1966. The Christian Confrontation with Shinto Nationalism. Philadelphia : The Presbyterian and Reformed Publishing Co.
- Min, Kyung-Bae. 1977. History of Korean Christianity. Seoul : Christian Literature Society.
- Oh, Pyeung-Seh. 1983. Keeping the Faith Pure. In Korean Church Growth Explosion. ed. Ro Bong-Rin and Marlin L. Nelson. Seoul : Word of Life.

- Paik, L. George. 1971. The History of Protestant Missions in Korea 1832-1910. Seoul : Yonsei University Press.
- Park, Yong Kyu. 1991. Korean Presbyterianism and Biblical Authority : The Role of Scripture in the Shaping of Korean Presbyterianism, 1918-1953. Ph. D. diss., Trinity Evangelical Divinity School.
- Park, Hi Chun. 1997. Sermon Just Came From Bible, Seoul : Yo Dan Press.
- Rhodes, Harry A., ed. 1934. History of the Korea Mission : Presbyterian Church. Seoul : Chosen Mission Presbyterian Church U. S. A.
- Ro, Bong-Rin and Nelson, Marlin L., ed. 1983. Korean Church Growth Explosion. Seoul : Word of Life Press.
- Shearer, Roy E. 1966. Wildfire : Church Growth in Korea. Grand Rapids : Eerdmans.
- Wasson, Alfred W. 1934. Church Growth in Korea. New York : International Missionary Council.
- Yun, Sung-Bum. 1964. Christianity and Korean Thought. Seoul : The Christian Literature Society.

高神大學校
論文集第23輯
1996. pp. 55~70

기독교 유아교육의 원리

김 성 수*

목 차

- I. 서 론
- II. 기독교 유아교육의 의미
- III. 기독교 유아교육의 기초
 - 1. 하나님의 말씀
 - 2. 인간관
 - 1) 하나님의 형상
 - 2) 종교적 존재
 - 3) 전인적 존재
 - 4) 다차원적 존재
 - 3. 실재관
 - 4. 지식관
- IV. 기독교 유아교육의 몇가지 기본 원리
 - 1. 협동교육의 원리
 - 2. 전인교육의 원리
 - 3. ‘마음’(heart) 구비의 원리
 - 4. 창조세계 반영의 원리
 - 5. 기독교적 가르침의 원리
 - 1) 인도의 원리
 - 2) 개현의 원리
 - 3) 구조화의 원리
 - 4) 능력부여의 원리
- V. 맺는 말

* 교수(기독교교육과), 교육철학전공